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유미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Yu-Mi Kim

Department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3곳의 간호학과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r=.50, p<.001$), 긍정심리자본($r=.52,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간에도 정적상관($r=.60, p<.001$)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4.1%로 나타났다($F=20.619, p<.001$).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4개요인 중 자기효능감, 희망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긍정심리자본 역시 학습몰입의 강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and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218 nursing students following a four-year curriculum in J cit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st to April 15th, 201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2.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actor affecting learning flow was self-leadership, which explained 44.1% of the variance in learning flow. Moreover, of 4 the componen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and hop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relationship were positive relevant. To enhance the learning flow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to increase their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words : Learning Flow, Mediation Effect, Nursing stu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leadership

본 논문은 한국국제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한국국제대학교)

*Corresponding Author :Yu-Mi Ki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82-55-751-7914. email: hambo2628@hanmail.net

Received June 10, 2016

Revised (1st July 1, 2016, 2nd July 6, 2016)

Accepted July 7, 2016

Published July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과 외부환경의 탐색을 통하여 자기개념을 정립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1].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셀프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발휘한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끄는 자율적인 힘이다[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학업에 흥미를 더하여 학습성취를 나타내고, 학과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나아가게 하여 대학생의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3,4].

최근 들어 이러한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라는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정서와 경험이 조직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긍정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 POB)의 핵심개념으로 개인의 복합적인 긍정적 심리상태를 하나의 심리자본으로 통합한 것이다[5,6]. 이러한 상태적인(state-like) 심리역량을 만족시키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y)이 있다[6,7].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행복, 리더십, 자기주도 학습, 몰입, 창의성, 직무태도, 조직성과 등과 같은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관계도 확인되고 있으며[5,8-10],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임하여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간호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성과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되면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몰입(learning flow)’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12].

학습몰입은 학습자들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학습활동에 몰입하고, 과제해결을 위하여 모든 정신과정과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경험을 의미한다[13-15]. 이러한 학습몰입은 원만한 학업 수행, 성적 향상과 학습지속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학습몰입의 경험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을 바탕으로 창의성의 신장과 동기유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된 변인에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등을 들고 있으며[12], 긍정심리자본은 동기관련 변인으로서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17,18].

최적의 몰입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업 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건강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상태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자율성’을 중심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내적 리더십[21]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긍정심리자본이나 셀프리더십이 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19],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도[4], 임상실습과 관련한 연구[20,21]가 대부분이었고,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12]가 실시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심리학과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학 분야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긍정심리자본의 활용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 변인 관계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인지상태와 강점을 증진하고,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특성과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3곳의 간호학과 재학생 240명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36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당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전화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 방문과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과장이 배석한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15분 가량 소요되었고, 설문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응답지는 동봉한 봉투를 이용하여 밀봉한 상태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최초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7.9%), 그 중 부적절한 설문응답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Manz[22]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각각 3문항 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2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었다.

2.3.2 긍정심리자본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Youssef 및 Avolio[6]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의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Scale: PCQ)를 임태홍[24]이 번안 및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은 18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5문항), 낙관주의(5문항), 희망(5문항), 회복탄력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이다’,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한다’, ‘나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등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까지)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태홍[24]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효능감 .88, 낙관주의 .82, 희망 .84, 회복탄력성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8이었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효능감이 .88, 낙관주의가 .70, 희망이 .80, 회복탄력성

이 .86으로 나타났다.

2.3.3 학습몰입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13]가 개발한 학생용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도전·기술·균형 3문항, 명확한 목표 3문항, 구체적 피드백 3문항, 행동·지각·일치 3문항, 과제집중 3문항, 통제감 3문항, 자의식 상실 3문항, 변형된 시간 감각 3문항, 자기 목적적 경험 5문항으로 9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13]의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의 Cronbach's α 값은 .65~.9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 .94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점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간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6.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5]의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leadership	t/F(p) Scheffé Te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F(p) Scheffé Test	Learning Flow	t/F(p) Scheffé Test
			M±SD		M±SD		M±SD	
Gender	Male	47(21.6)	3.77±.49	2.35(.022)	3.68±.53	2.63(.009)	2.87±.57	.31(.760)
	Female	171(78.4)	3.60±.35		3.48±.45		2.84±.53	
Grade	1st ^a	45(20.6)	3.50±.35	2.86(.038) d>a	3.39±.46	2.37(.071)	2.75±.44	3.52(.016) b>c
	2nd ^b	46(21.1)	3.65±.37		3.55±.39		3.01±.43	
	3rd ^c	54(24.8)	3.64±.34		3.50±.47		2.71±.63	
	4th ^d	73(33.5)	3.71±.44		3.62±.51		2.90±.54	
Religion	Yes	73(33.5)	3.62±.39	-.37(.713)	3.50±.52	-.53(.574)	2.86±.63	.21(.837)
	No	145(66.5)	3.64±.39		3.54±.45		2.84±.48	
High School Department	Humanities or Science	190(87.2)	3.66±.40	2.46(.015)	3.54±.49	1.11(.267)	2.88±.54	2.44(.016)
	Technique Etc.	28(12.8)	3.47±.30		3.43±.34		2.62±.46	
Applic ation motivation	Voluntarity ^a	95(43.6)	3.71±.40	5.19(.002) d>b	3.63±.47	3.82(.011) a>b	2.95±.57	3.13(.027) a>c
	Inducement ^b	49(22.5)	3.49±.33		3.37±.44		2.78±.47	
	Job abroad ^c	46(21.1)	3.56±.37		3.46±.50		2.68±.51	
	Etc ^d	28(12.8)	3.75±.41		3.56±.44		2.90±.4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122(56.0)	3.71±.38	6.63(.002) a>b	3.66±.44	12.96(<.001) a>b,c	3.03±.51	19.23(<.001) a>b,c
	Normal ^b	85(39.0)	3.52±.38		3.36±.48		2.62±.48	
	Dissatisfaction ^c	11(5.0)	3.68±.38		3.28±.33		2.58±.44	
Leadership experience	Yes	116(53.2)	3.70±.40	2.72(.007)	3.69±.45	6.01(<.001)	2.95±.53	3.12(.002)
	No	102(46.8)	3.56±.36		3.33±.42		2.73±.52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218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1.6%, 여자 78.4%이었다. 학년은 1학년 20.6%, 2학년 21.1%, 3학년 24.8%, 4학년 33.5%이었다. 종교유무는 '있다'가 33.5%, '없다'는 66.5%이었다. 졸업한 고교의 계열은 '인문계'가 87.2%, '비인문계'가 12.8%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내가 원해서'가 43.6%, '지인의 권유'가 22.5%, '취업률이 높아서 및 해외진출 21.1%의 순이었고, '기타'가 12.8%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6.0%, '보통'이 39.0%, '불만족'이 5.0%이었다. 리더경험 여부는 '있다'가 53.2%, '없다'가 46.8%이었다.

셀프리더십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 학년, 고교 계열,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리더경험 여부였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35$, $p=.022$), 학년은 '4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2.86$, $p=.038$). 고교계열은 '인문계'가 '비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46$, $p=.015$),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기타'가 '지인의 권유'보다 높게 나타났다($F=5.19$, $p=.002$).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6.63$, $p=.002$), 리더경험 여부는 '있다'가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t=2.72$, $p=.007$).

긍정심리자본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리더경험 여부였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63$, $p=.009$),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내가 원해서'가 '지인의 권유'보다 높게 나타났다($F=3.82$, $p=.011$).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12.96$, $p<.001$), 리더경험 여부는 '있다'가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t=6.01$, $p<.001$).

학습몰입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년, 고교계열,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리더경험 여부였다. 학년은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3.52$, $p=.016$), 고교계열은 '인문계'가 '비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t=2.44$, $p=.016$).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내가 원해서'가 '지인의 권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3.13$, $p=.032$),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F=19.23$, $p<.001$). 리더경험 여부는 '있다'가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t=3.12$, $p=.002$)[Table 1].

3.2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정도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점수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63\pm.39$ 점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53\pm.47$ 점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이 $3.70\pm.59$ 점, 낙관주의가 $3.71\pm.57$ 점, 희망이 $3.58\pm.59$, 회복탄력성이 $3.41\pm.92$ 이었다. 학습몰입의 평균은 $2.85\pm.53$ 점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N=218)

		Range	Min	Max	M±SD
Self-leadership		1-5	2.72	4.83	3.63±.39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1-5	2.00	5.00	3.70±.59
	Optimism	1-5	2.20	5.00	3.71±.57
	Hope	1-5	2.20	5.00	3.58±.59
	Resiliency	1-5	1.00	5.00	3.41±.92
	Total	1-5	2.33	4.83	3.53±.47
Learning Flow		1-5	1.34	4.79	2.85±.53

3.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상관분석결과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r=.50$, $p<.001$), 긍정심리자본($r=.52$, $p<.001$)과 정적상관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간에도 정적상관($r=.60$,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특성과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일반적 특성 중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공만족도, 리더경험 여부, 고교계열 변수를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고, 모형2는 추가로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는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903로 나타나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66~.9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고, VIF는 1.03~1.9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N=218)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Self-efficacy	Optimism	Hope	Resiliency	Total	
Self-leadership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54 ($<.001$)	1					
	Optimism	.48 ($<.001$)	.38 ($<.001$)	1				
	Hope	.50 ($<.001$)	.56 ($<.001$)	.44 ($<.001$)	1			
	Resiliency	.25 ($<.001$)	.33 ($<.001$)	.34 ($<.001$)	.38 ($<.001$)	1		
	Total	.60 ($<.001$)	.77 ($<.001$)	.73 ($<.001$)	.80 ($<.001$)	.68 ($<.001$)	1	
Learning Flow		.50 ($<.001$)	.52 ($<.001$)	.30 ($<.001$)	.54 ($<.001$)	.19 (.005)	.52 ($<.001$)	1

변수들 간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형1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리더 경험여부, 고교계열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9.5%였다($F=17.322$, $p<.001$). 모형2에서 추가로 투입된 셀프리더십은 14.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7.876$, $p<.001$). 모형3에서 추가로 투입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항목들 중 자기효능감($\beta=.248$, $p<.001$)과 희망($\beta=.24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항목들에 의한 설명력은 9.7%로 나타나 총 4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0.619$, $p<.001$) [Table 4].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N=218)

		Model1	Model2	Model3
		$\beta(p)$	$\beta(p)$	$\beta(p)$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Criteria: Dissatisfaction-Satisfaction)	.358($<.001$)	.280($<.001$)	.211($<.001$)
	Leadership experience (Criteria:No-Yes)	.161(.010)	.098(.086)	.006(.914)
	High School Department(Criteria: (Technique Etc -Humanities or Science)	.138(.026)	.077(.176)	.050(.347)
Independent variable	Self-leadership	-	.405($<.001$)	.218(.001)
Mediating variable	Self-efficacy	-	-	.248($<.001$)
	Optimism	-	-	-.041(.524)
	Hope	-	-	.249(.001)
	Resiliency	-	-	-.061(.294)
R^2		.195	.344	.441
Adjusted R^2		-	.148	.097
$F(p)$		17.322 ($<.001$)	27.876($<.001$)	20.619($<.001$)
Adjusted $F(p)$		-	48.102($<.001$)	9.114($<.001$)

3.5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25]의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셀프리더십이 종속변인인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셀프리더십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셀프리더십과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5.1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8$, $p<.001$), 설명력은 24.8%이었다($F=71.278$, $p<.001$). 2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540$, $p<.001$), 설명력은 29.1%이었다($F=88.690$, $p<.001$).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beta=.307$, $p<.001$)과 자기효능감($\beta=.354$, $p<.001$)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7%이었다.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단계에서의 표준화계수(β)가 .307로 유의하긴 하였지만,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주는 표준화계수(β)인 .498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Effect on Parameters of the Self-efficacy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N=218)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R ²	F(p)
1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84	.081	.498	8.443	<.001	.248	.245	71.278(<.001)
2	Self-efficacy	Self-leadership	.814	.086	.540	9.418	<.001	.291	.288	88.690(<.001)
3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422	.091	.307	4.657	<.001	.337	.331	54.627(<.001)
		Self-efficacy	.322	.060	.354	5.367	<.001			

Table 6. Effect on Parameters of the Optimism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N=218)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R ²	F(p)
1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84	.081	.498	8.443	<.001	.248	.245	71.278(<.001)
2	Optimism	Self-leadership	.693	.087	.476	7.958	<.001	.227	.223	63.330(<.001)
3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35	.092	.462	6.894	<.001	.252	.246	36.311(<.001)
		Optimism	.071	.063	.075	1.122	.263			

Table 7. Effect on Parameters of the Hope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N=218)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R ²	F(p)
1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84	.081	.498	8.443	<.001	.248	.245	71.278(<.001)
2	Hope	Self-leadership	.814	.086	.499	9.418	<.001	.249	.245	81.434(<.001)
3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414	.086	.302	4.811	<.001	.365	.359	61.752(<.001)
		Hope	.364	.058	.394	6.286	<.001			

3.5.2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8$, $p<.001$), 셀프리더십에 의한 설명력은 24.8%이었다($F=71.278$, $p<.001$). 2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76$, $p<.001$), 설명력은 22.7%이었다($F=63.330$, $p<.001$).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beta=.462$, $p<.001$)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낙관주의($\beta=.075$, $p=.263$)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Table 6].

3.5.3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8$, $p<.001$), 셀프리더십에 의한 설명력은 24.8%이었다($F=71.278$, $p<.001$). 2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9$, $p<.001$), 설명력은 24.9%이었다($F=81.434$, $p<.001$).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beta=.302$, $p<.001$)과 희망($\beta=.394$, $p<.001$)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5%이었다.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 한 결과 3단계에서의 표준화계수(β)가 .302로 유의하긴 하였지만,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주는 표준화계수(β)인 .498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희망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7].

3.5.4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98$, $p<.001$), 셀프리더십에 의한 설명력은 24.8%이었다($F=71.278$, $p<.001$). 2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은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51$, $p<.001$), 설명력은 6.3%이었다($F=14.491$, $p<.001$).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beta=.481$, $p<.001$)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회복탄력성($\beta=.070$, $p=.252$)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Table 8].

Table 8. Effect on Parameters of the Resiliency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N=218)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R ²	F(p)
1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84	.081	.498	8.443	<.001	.248	.245	71.278(<.001)
2	Resiliency	Self-leadership	.595	.156	.251	3.807	<.001	.063	.059	14.491(<.001)
3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660	.084	.481	7.891	<.001	.253	.246	36.351(<.001)
		Resiliency	.040	.035	.070	1.148	.25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원효진의 연구[26]에서는 5점 만점에 3.38점, 김선화, 박상연의 연구[12]에서는 3.4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종율, 조미혜[27]의 연구의 3.74점과 양남영과 문선영의 연구[18]에서의 3.72점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이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선행연구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이종율, 조미혜의 연구[27]에서는 3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양남영과 문선영의 연구[20]에서는 3,4년제의 구분은 없으나, 한 학기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정도를 측정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효진의 연구[26]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선화, 박상연의 연구[12]에서는 전 학년 중 1,2학년의 비중이 55.8%를 차지해 이를 통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시기가 4월인 학기초라서 4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셀프리더십의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자기주도적인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3점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 3.70점, 낙관주의 3.71점, 희망 3.58점, 회복탄력성 3.41점 이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혜영[28]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4.28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이 4.35점, 낙관주의가 4.27점, 희망이 4.30점, 회복탄력성이 4.20점 이었다. 서울, 경기 및 기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미경의 연구[18]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이 3.10점, 낙관주의가 3.53점, 희망이 3.46, 회복탄력성이 3.56이었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개념들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를 할 수 없었고,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 간의 비교연구나,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보유 정도는 재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의 평균은 2.85점 이었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화, 박상연의 연구[12]에서 학습몰입은 3.34점, 같은 도구를 사용한 대학생 대상의 홍미경의 연구[18]에서 학습몰입은 2.87점, 강명수, 방은령의 연구[29]에서 학습몰입은 3.35점, 이숙정의 연구[17]에서 학습몰입은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비교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습몰입을 낮게 지각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유능함을 현재의 대학 환경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학습몰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학습몰입은 대학생들의 적응 및 부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들이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습몰입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습몰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과 진로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학교 측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습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나 조건 등을 제공하여 학습몰입에 대한 동기유발과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관분석결과 학습몰입은 셀프리더십($r=.50, p<.001$), 긍정심리자본($r=.52, p<.001$)과 정적상관관계,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간에도 정적상관($r=.60, p<.001$)관계가 나타났다. 김선화, 박상연의 연구[12]에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r=.68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역시 학습몰입($r=.693,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선의 연구[30]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r=.47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홍미경의 연구[18]에서 학습몰입과 긍정심리자본 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숙정의 연구[17]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강하다고 하였다. 김보경, 정철영의 연구[3]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수진, 나정미[10], 이새롬[31], 홍미경의 연구[18]에서는 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셀프 리더십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학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잘 형성된 대학생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함으로써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신의 미래상에 대한 목표도 명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긍정심리자본은 그간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개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셀프리더십은 독립변인으로, 학습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 또한 증가되어 학습몰입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선화, 박상연의 연구[12]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에서

개인적 특성, 긍정심리자본, 셀프리더십이 포함된 모형 3은 44.1%의 설명력을 보였다.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는 학습몰입에 희망($\beta=.249$), 자기효능감($\beta=.248$), 셀프리더십($\beta=.218$)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파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관련변수로 한 연구[18]는 있었으나, 간호학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라 향후 다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학습몰입은 긍정심리자본, 셀프리더십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자본,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개념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개념인 자기효능감과 희망을 높임으로써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효과에서 이새롬의 연구[31]에서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3요인에 대한 부분채택의 결과를, 홍미경의 연구[18]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의 3요인에 대한 부분채택의 결과를, 전수진, 나정미의 연구[10]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4요인에 대한 전체 채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도 부분채택과 전부채택의 서로 다른 결과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셀프리더십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자기효능감, 희망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욱더 학습에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효과적인 학습몰입을 위해 학생과 교수자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강화에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긍정심리자본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증진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간호학에서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이 모두 포함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가 셀프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총 218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4.1%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 역시 학습몰입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간호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수준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몰입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경험의 과정, 상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측정을 위해서 향후연구에서는 측정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C. J. Kim, Y. H. Ahn, M. W. Kim, Y. O. Jeong, J. H. Le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a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Reflection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Profession", *J Korean Acad Nurs*, 36(6), pp. 1002-1011, 2006.
- [2] C. C. Manz, H. P. Sim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4(4), pp. 18-35, 1991.
DOI: [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http://dx.doi.org/10.1016/0090-2616(91)90051-A)
- [3] B. K. Kim, C. Y. Jyu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2), pp. 49-71, 2012.
- [4]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pp. 229-24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229>
- [5] K. H.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reativity and Job Involvement of Small & Medium Company Employee".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14(1), pp. 115-132, 2012.
- [6] F. Luthans, C. M. Youssef, & B. J. Avoli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7] F. Luthans, J. B. Avey, B. J. Avolio, & S. J. Peterson,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1), pp. 41-67, 2010.
DOI: <http://dx.doi.org/10.1002/hrdq.20034>
- [8] J.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worker's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4.
- [9] Y. D. Choi, H. J. Jeong, D. S. Lee, "Leader's use of humor and employees' performance and work happiness", *Korean Management Review*, 41(3), pp. 575-605, 2012.
- [10] S. J. Jeon, J. M. Na,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the Career Pla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3), pp. 319-342, 2013.
- [11] M. Y. Lee, K. H. Kim, "Influence of Head Nurs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Staff Nurse's Psychological Well-being, Stress and Somatiz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2), pp. 166-175, 2012.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2.166>
- [12]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pp. 1557-156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 [13] A. Y. Kim, H. Y. Tack, C. H.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pp. 39-59, 2010.
- [14] S. I. Park, Y. K. Kim,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Open Association Education*, 14(1), pp. 93-115, 2006.
- [15] M. Csikszentmihalyi,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1st e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6.
- [16] J. C. Perry,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youth of color: criterion pattern effects of vocational exploration and raci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 pp. 397-422, 2008.
DOI: <http://dx.doi.org/10.1177/0894845308316293>
- [17]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pp. 235-253, 2011.
- [18] M. K. Hong,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Learning Flow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9(6), pp. 1-23, 2015.
- [19] K. H. Kim, E. 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pp. 436-4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20] N. Y. Yang, S. Y. Mo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pp. 216-225,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216>
- [21]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9.
- [22]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pp. 585-600, 1986.
DOI: <http://dx.doi.org/10.5465/AMR.1986.4306232>
- [23] H. S. Kim, "Middle school teacher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2.
- [24] T. H. Le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K-PPC)",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6(3), pp. 157-166, 2014.
- [2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6] H. J. Won,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1), pp. 123-131, 2015.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1.123>
DOI: 10.12811/kshsm.2015.9.1.123
- [27] J. Y. Lee, M. H. Cho,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3(3-4), pp. 241-253, 2012.
- [28] H. Y. Ha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nse of humor on their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2013.
- [29] M. S. Kang, E. R. Bang,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4), pp. 443-467, 2014.
- [30]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pp. 6036-604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36>
- [31] S. R. Lee,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upon organizational change commitment and innovative behavior and the inter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3.

김 유 미(Yu-Mi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